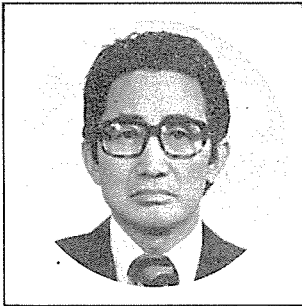


“工業化社会有感”



朴 益 洙

〈韓國科學著述人協會회장〉

「공업화」(Industrialization)란 석탄, 전력, 원자력 등 비생물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여 기계장치를 움직이면서 여러가지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뜻한다. 과학기술과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잘 활용하여 이것을 「공업화」하면 우리가 원하는 풍부와 힘을 가장 합리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서양은 일찍부터 이러한 기술과 사상에 익숙하여 세계의 강대국으로 세계를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공업화」를 곧 「근대화」라고도 한다. 공업이 발달하면 이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도시를 형성하고 도시를 통해 자유의 바람이 불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싹트고 농토를 중심으로한 대가족제도가 붕괴하면서 중세의 봉건사회는 근대사회로 전환했다.

말하자면 「공업화」는 바로 「근대화」이며 「근대화」의 정신은 바로 자유의 정신인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도 이 자유의 정신에서 탄생하고 「공업화」의 기초 위에서 발전하였다.

물론 자연이 그 곳에 있기에 정복하듯이 「공

업화」도 적극적으로 자연을 정복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다. 실제 「과학기술」이나 「공업화」는 인간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적인 노력에 의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으며 동양적인 靜觀에서는 결코 이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서양에 있어서의 「공업화」의 기점은 1769년 영국의 산업혁명이며, 그 「공업화」가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은 그로부터 거의 90년이 지난 1860년경이다. 프랑스와 미국은 1800년경, 독일은 1840년경 그리고 일본은 1880년경에 그 「공업화」정책이 시동하여 1900년 전후에 모두 완성되었다.

「기술은 사회의 鑄型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기술의 성격이 달라지면 이에따라 사회의 조직이나 성격도 바뀌어지며 「공업화」도 바로 이러한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공업화」의 힘은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이웃관계 처럼 보다 긴밀하게 하고 동시에 보다 고도자본주의(독점자본주의)와 보다 강력한 군국주의 그리고 독재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된다.

이 때문에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의 차등이 분명해 지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뜻대로 정복하고 예측하고 식민지화하는 역사의 불행과 비극이 생기게 된 것이다.

영국은 24시간 해가 지는 곳이 없을 만큼 세계의 도처에 식민지를 가졌고 독일 히틀러의 독재, 일본의 군국주의는 이러한 「공업화」의 기반 위에서 가능하였던 것이다.

제2차대전 후, 강대국의 식민지와 정복의 사슬에서 벗어난 모든 신생독립국을 위시하여 모

든 후진국들은 「공업화」의 길을 당연하고도 절실한 과제로 신봉하였다.

우리나라도 해방후 계속된 건국의 정치적 혼란과 6·25동란이라는 뼈아픈 시련을 겪은 다음, 1962년부터 비로소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참다운 「공업화」정책을 국가목표로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지향하여야 할 국가의 방향과 모델이 선진국과 같은 「공업화」였던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수출을 창조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열심히 선진기술을 도입하였다. 고급과학자·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선진국에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많은 해외훈련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우리는 후진국에서 탈피하여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중진국수준에서 선진국 진입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의식 무의식 중, 우리의 머리 깊숙히 박혀진 새로운 「관념의 산물」이 생겼다. 그것은 동양적인 것보다 서양적인 것이 모든 면에서 좋다는 판단의 기준이다. 서양의 「공업화」를 맹목적으로 동경하고 찬미한 우리의 의식이 언젠가 모르게 서양의 모든 문화와 생활관습에 이르기까지 우리보다 先進이요, 優位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서양식으로 하는 것이 신식이요, 그렇지 않는 것이 구식이라는 맹목적인 판단의 轉倒가 우리 관념속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식사도 서양식으로 해야 문화적이고, 집도 양옥집을 지어야 부자 집 같고 인사도 서양식으로 해야 외국교양이 많은 사람 같고 신앙도 기독교를 믿어야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변한 모습이자 의식이 아니었던가.

만일 애정을 표시하는 키스가 동양의 관습이었다면 서양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야만적이고 비위생적이라 혹평하였을 것이다. 또 곳과 때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이쪽 저쪽 볼을 번갈아 맞추고 포옹하며 인사하는 법은 근래 TV에서도 자주 보게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의 인사법보다 훌륭한 것인가.

수용태세와 준비없이 받아들인 능률주의는 과연 우리사회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던가.

보다시피 오늘날 우리사회는 위계질서가 허물어지고 도덕은 땅에 떨어져 예의는 하늘만 쳐다보고 통곡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공업화」목표가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거나 국수주의를 예찬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공업화」에 몰두하는 나머지 「공업화」의 선두주자인 서양의 모든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찬미하는 이러한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의식구조를 경고하며 다시 반성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업화」외의 우리의 목표를 다시 냉정히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요즘 남북의 벽이 풀리고 백두산,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제주도의 한라산, 남해의 한려수도, 중부의 내장산과 지리산, 속초의 설악산, 그리고 동해 연안에 백사장을 안고 구비구비 돌아가는 수려한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세계에 자랑하여 부끄러움 없는 절경이라 하겠다.

사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막 밑에 석유를 숨겨 주었고,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하지 않아도 나무열매를 따 먹고 살 수 있게 하였고, 인도 사람들에게는 빈곤에 의해 피골이 상접해도 자살하지 않고 물질과 세속을 초탈해 사는 佛心을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어떠한 자연의 생활조건을 준 것일까. 이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가 현재 탄생하고 존립하고 있는 우리자연의 국토조건을 새삼 냉정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관광한국」의 개발!

餘暇時代라고도 호칭되는 내일을 위하여 세계를 향한 「관광한국」의 목표야말로 「공업화사회」의 목표에 못지 않게 우리가 주력해야 할 가치 있고 뜻있고 그리고 현명한 우리의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것이 또 천혜의 선물로 준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최선의 보답이 될 것이 아닌가.

「공업화」로 우리의 금수강산을 이 이상 더럽히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